

6/28/15

설교 제목: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신명기 5:16, 에베소서 6:1-3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여러분보다 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저를 바라보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꼭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 가지 계명 즉 '십계명'입니다.

(신 5: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 5: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렐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신 5: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 5:4)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 (신 5: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 (신 5: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 (신 5: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 (신 5: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신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신 5: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신 5: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 (신 5: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 (신 5: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신 5: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 (신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 (신 5:18) 간음하지 말지니라
- (신 5:19)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十誡命)에서 계(誡)는 '분부, 명령'이라는 뜻이고 명(命)은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하는 명령인 동시에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 10: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나 즉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써 우리가 이를 온전히 지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바로 제 5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10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사실이며, 또한 이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부모는 나를 육체적으로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행위에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할 태도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성경에서 '경외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외하라'는 표현을 하나님외에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시겠습니다.

(출 21:15)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17)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신 21: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신 21:19)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신 21: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신 21:21)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른 모든 계명은 '무엇 무엇을 하라'는 명령만 주어진대 반해 유독 이 5 계명은 명령이 주어지고 연이어 명령 이행에 따른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5 계명은 약속있는 첫 계명입니다.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할 것과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지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기르도록 위탁하시면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첫 걸음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부모의 말씀을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항상 합당하고 겸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대꾸를 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리켜 흔히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웃의 경우 내 몸같이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부딪치거나 분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서로에게 무관심한 연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한 내리 사랑이라고 자식에 대해서도 항상 싸우고 지지고 복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냥 참고 양보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입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어 갚을 것이 많은 부모에 대해서는 유독 얼마나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해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 더 안해주는 것이 섭섭하기만 하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대변하는 말이 "그런 것도 못해 주려면 뭐하러 날 낳어?"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3.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가 늙어져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부모를 위해 이젠 내가 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된 아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인 이 일이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마가 복음 7 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드릴 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친바 되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다 받쳐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함으로써 부모 부양을 피할 방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막 7:9)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 7: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막 7: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막 7: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막 7: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4.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부모님과 같이 고마운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값없이 낳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값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부모의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워 한 적은 없는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를 낳아 길러 주신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에는 정한 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말에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복종' 이 말에는 두 가지 상충되는 뜻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예배하고 따라야 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거역해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 10: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물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연적으로 부모를 미워하거나 거역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강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국에는 부모를 위한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의 뜻에 따라 교회 다니기를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모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되 우선 순위를 분명히 세워 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모범을 보이려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경외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공경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눅 2:51)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와 동일한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한 공경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지고 가던 모든 짐들을 장자로서 온전히 지고 갔으며, 죽음의 순간에서도 어머니의 부양을 제자이자 외사촌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부모를 복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가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종용할 경우 부모를 거역해야 한다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부모를 온전히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알아야 할 사실은 이 5 계명이 단지 부모 공경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5 계명을 단지 육신의 부모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세상 '권위'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을 "아버지"라고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은 분들 장로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며,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서도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결국 제 5 계명은 육신의 부모에서 더 확대된 개념인 사회의 아버지 즉 사회의 권위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할 때 부부 관계, 노사 관계, 국가와의 관계 등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의 관계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합당하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교회의 목회자, 이웃의 어른들, 정부 등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섬겨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님이 약속하신 이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